

제 4 장

“너희는 기억하라”



제 4 장

“너희는 …… 기억하라”

[제 4장]

1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개같은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2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3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라 4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5 보라 여호와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X. 심판 날을 위한 준비 3:16~4:6

1.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의 멸망 3:18~4:1,3

1.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개같은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악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불에 의한 완전한 멸망이다. 선지자는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2:17)라고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모든 악인들에게 심판과 공의를 집행하실 날이 있을 것이라는 엄숙한 보증을 제시한다. 그날은 율 1:15, 2:1; 암 5:18, 20; 습 2:1~3등에 나오는 “여호와와의 날” 이다.

교만한 : 교만이라는 죄는 특별히 하나님께 거슬리는 죄이며, 말라기가 여기서 따로 언급하는 유일한 죄이다.

초개 : (KJV “stubbe” 그루터기)경건치 않은 자들이 당할 완전한 파멸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보다 더 강한 표현이 사용될 수 없었다.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 생명을 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초개” 처럼 즉시 소멸될 것이다.

“그대는 죄인들에게 거침돌이다. 그대는 표가 나게 헌신이 부족하다. 그대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아들이기보다는 헤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대가 입은 자기 의의 옷을 내가 찢어 버릴 수만 있다면 나는 그대가 시간을 보충하고 모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할 것이다. 그대는 자주 일깨움을 받았다. 그러나 죽었으나 살았다는 이름만 갖고 살며 예전의 무위와 자기 의의 상태에 그만큼 자주 빠져 내려갔다.

그대는 교만 때문에 파멸을 당할 지경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점에 관하여 그대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개혁하지 않으면 고통이 따를 것이고, 그대의 기쁨은 암울로 바뀌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 밑에서 마음을 겸손하게 하기까지 그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 그 기도들은 교만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 나의 사랑하는 자매여, 그대는 헛되다. 겸손하여 남에게 복이 되게 살았다면 이웃에게 축복이 되었을 텐데 그대는 목표 없이 살았다. 하나님께서 그대의 부모와 자매들이 그대를 그 지경(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상태,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의 날에 불에 탈 지푸라기밖에 못되는 상태)으로 만드는 데 일조한 죄를 용서하시길 빈다” (2T 176).

그들을 살라 : 성경에는 널리 알려진 오류 곧 영원히 불타는 지옥과 같은 오류는 나오지 않는다. 악인들은 끝없이 불타지 않는다. 마지막 날의 불은 문자 그대로 “그들을 살라” 버릴 것이다.

뿌리와 가지 : 죄와 죄인들이 철저히 전멸될 것을 나타내는 인상적인 비유, 악의 “뿌리” 혹은 창시자로 상징된 사단과 그 가지들로 상징된 그의 추종자들은 모두 완전히 멸망된다.

〈악의 뿌리와 가지〉

“거짓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일이 하늘 책에 기록되어 있고, 사단의 거짓말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실천함으로써 사단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바친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뿌리와 가지는 마지막 때의 불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배도의 최고 사령관인 사단은 뿌리요,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사단의 거짓말을 가르친 사단의 모든 사역자들은 그 가지들이다” (원고 58, 1897).

3.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증됨 4:2, 4~6

2.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의로운 해 :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이요, 우리 의의 구원이신 분으로 나타내는 비유한다. 그리스도께서는 필요할 때에 그분의 백성에게 영적인 빛을 가져다주시기 위해 항상 예비하고 계신다. 그런 의미에서 "의로운 해"는 그리스도의 초림 시에 떠올랐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분의 재림 직전, 곧 도덕적인 큰 어둠의 때에 특별한 방법으로 “떠오를” 것이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영원한 공의를 펼치실 것이다. 치료하는 이란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시 107:20과 같은 멸망에서 구원하심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속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기뻐 뛰는 것으로 묘사된다.

“옛 선지자들의 계시 속에는 영광의 주님이 당신의 재림 직전에 있을 암흑과 불신의 시대에 당신의 교회에게 특별한 빛을 주실 분으로 나타나 있다. 주께서는 의의 태양으로서 당신의 교회 위에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발” 하실 것이었다. 그리고 참된 모든 주님의 제자들로부터도 생애를 위한 감화와 용기와 유용성과 참된 치료가 발산될 것이었다” (PK 717).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어린양을 따름〉

“주님은 지상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한 백성을 갖고 계신다. 그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을 수많은 사람들을 갖고 계신다. 그러나 그들은 먼저 이 땅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멸망해 가는 사람들을 구

원하는 일에 종사할 준비를 하고 서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따라 가기 위해서 승천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여기 이 땅에서 그분을 따른 자들만 위에 있는 궁전에서 하나님의 어린양을 따르는 자들이 될 것이다. 하늘에서 그분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좌우되는 것이다. 발작적으로 혹은 변덕스럽게 그를 따르는 자가 되어서도 안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만 따르는 자가 되어서도 안된다.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을 내려야 하며, 양이 목자를 믿고 따르는 것처럼 매일의 생활에서 그분의 모본을 따라야 한다. 매 발자국마다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 라고 말하면서 그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음으로써 그를 따라가야 한다. 그의 생활 습관은 나의 생활 습관이 되어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그와 같이 되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의지를 그의 의지와 일치시키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그분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리뷰 1898.4.12).

3.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의인들은 마침내 악인들에게 승리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4.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너희는 기억하라 : 말라기는 그의 예언을 끝마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자기 백성에게 충고한다. 인간의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에 선행되어야 한다. 구약의 정경을 마감하는 선지자가 “호렙”에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레 26장, 신 28장) 준수하는 일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또한 “모세법”이 여호와의 날을 위해 예비하도록 백성을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내 종 모세 : 모세가 특별히 언급된 것은 분명히 그가 그를 통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교훈, 곧 그분의 “율례와 법도”가 주어진 “중보”였기 때문이었다.

5. “보라 여호와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예언은 후대의 많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엘리야가 직접 이 땅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군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눅 1:17)오게 되어있는 즉, 엘리야의 기별과 유사한 기별을 전하게 될 사람에 관한 예언이다.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도 유사한 사업이 세천사의 기별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에게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자들이 엘리야와 침례 요한의 심령과 능력으로 심판 받아야 할 세계를 향하여 그들의 주의를 은혜의 시기의 끝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관련해서 곧 일어날 엄숙한 사건들에 기울이도록 호소하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은 이르렀고 세상에 있는 그분의 교회의 교인들에게는 바로 영원한 멸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들에게 경고할 엄숙한 책임이 놓여 있다. 기별에 유의할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대쟁투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원칙들 곧 온 인류의 운명이 걸려 있는 원칙들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PK, 716).

6.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 이곳에 예언된 기별은 참된 회개로 이끄는 기

별이 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눅 1:16)

저주 : [히]herem “멸망에 바쳐진 것” 구약은 이 엄숙한 경고로 마감된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악인들에 포함되어 그들의 운명을 당하게 될 것이다(말 4:1).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기는 희망의 기별을 제시하는데 이는 죄인들을 멸하시는 그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치료”를 가져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제 2의 은혜의 시기는 없음〉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제2의 은혜의 시기는 없다. 지금이 그 은혜의 때이다. 그 은혜의 천사가 황금 날개를 접기 전, 그리고 그 보좌에서 그 천사가 걸어 내려오기 전, 자비가 영원히 끝나기 전, 지금이 그 은혜의 때이다” (원고 49, 1894).

〈엘리아의 기별〉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기 바로 직전인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큰 날에 설 한 백성을 준비시킬 사람들을 부르신다. 요한이 행한 것과 같은 그런 사업이 이 마지막 시대에 수행되어야 한다. 우리의 기별은 평화와 안전의 기별이어서는 안된다. 주께서 곧 나타나 시리라고 믿는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전해야 할 명백한 기별을 갖고 있다.”

그 기별은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는 것이다. 우리의 기별은 침례 요한의 기별처럼 직접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는 왕들의 죄를 책망하였다. 생명에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리가 그의 입술에서 약해지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다. 범세계적인 배도의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의 기별자들에게 엘리아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의 율법을 선포하라고

하신다.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하여 한 백성을 준비시킬 때에 십계명으로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킨 것과 같이 우리도 분명한 소리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음이니” 선지자 엘리야와 침례 요한의 특징이었던 열성을 가지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안교 1905.3.21).

〈심판대 앞에 설 각 사람의 준비〉

“오늘날 우리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 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아니한 오늘날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한다. 그들은 심각하고 철저하게 마음을 살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허(浮虛)하고 경박한 정신은 반드시 버려져야 한다. 지배권을 장악하고자 일어나는 악한 경향들을 이기고자 하는 모든 사람 앞에는 반드시 격렬한 투쟁이 있다. 준비하는 일은 개인적으로 할 일이다. 우리는 단체적으로 구원을 얻지 않는다. 심판은 오늘날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신속히, 얼마나 신속히 오늘날 살아 있는 자들의 사건이 취급될지 아무도 모른다. 엄숙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생애가 드러날 것이다. “주의 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막 13:33).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계 3:3), (GC, 490).